속리- 화양동 탐방시나리오(청소년)

1. 기획목적

○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시켜,교과서에서 미처 알지못하는 직접 체험을 할 수있는 프로그램입니다.즐거운 화양동 탐방을 위한 시나리오입니다.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초등학생과 가족단위, 성인(20명)
○ 대상지 : 청소년-화양동 자연관찰로
○ 준비물 : 리플렛, 안내서
○ 계절 : 4계절
○ 소요시간 : 1시간
○ 관찰로 길이 : 300m

3. 프로그램 시나리오

(1) 해설자 소개 및 참가자들간의 인사

안녕하세요~!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 공단 화양동 분소입니다.
화양동는 예전에는 황양나무 (지금의 회양목)가 많아 황양동이라 불리다가 600여 년 전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머물면서 중화의 화 ’ 일양래복의 양 을 따서 화양동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우선 이 곳 화양동에 오시게 되면 자연과역사 (송시열)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 화양동의 터줏대감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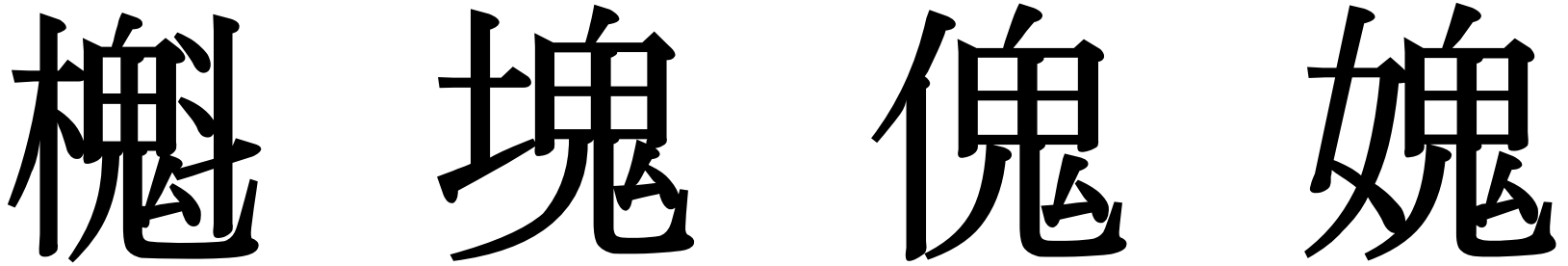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어 마을을 지키는 나무로 신령스럽게 여겼지요.
이곳의 나무를 보면 예전의 마을 규모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에는 왜 느티나무를 심었을까요?
습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서 이곳에는 느티나무가 많습니다. 또한 통풍과 적당한 햇빛을 아래로 보내줘서 툇마루가 썩지 않아, 아마 우리조상들은 느티나무를 심었나봅니다. 수명이 길고, 여름이면 넓은 그늘을 만들어 정자나무로 마을 사람들의 자연스런 집합처가 되어 사랑방이 되었고, 여기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지혜를 얻기도 했다 네요.
옛날에 보면 느티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을 까요~?(어른들은 장기, 아이들은 공기놀이나 제기차기)
또 느티나무 보고 사계절을 생각해 보면 봄의 신록, 여름의 성 록, 가을의 단풍, 겨울의 나목 등 사철 변해 가는 아름다움은 어떤 신앙 비슷한 정서를 느끼게 하여 양반나무라 불릴 많 큼 선조들의 사랑을 받은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봄에는 제비꽃이 있는데요~! 지금 탐방객이 서있는 자리로 옆을 보면 그 자리에는 제비꽃자랍니다. 옛날에는 제비가 날아올 때 꽃이 핀다고 해서 제비꽃, 또는 꽃이 필 때면 오랑캐들이 침략해 왔기 때문에 오랑캐꽃이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또한 꽃 모양이 씨름하는 모습을 닮아 씨름꽃 이라고도 합니다. 봄이 되면 풀들 사이로 보라색의 꽃들이 마치 시샘이라도 하듯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봄은 동 · 식물들에게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식물들은 새싹을 준비하고 동물들의 새끼가 태어 납니다. 그렇듯이 지금 탐방객이 보시는 이 느티나무도 조금 있으면 새싹이 나와 봄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의 괴자가 회화나무 괴 쟈인데 느티나무 괴 쟈로도 쓰입니다. 아마 괴산군에는 느티나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느티나무 괴 쟈로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요~! 지금 이 앞에 준비 되어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세여~! (시간은 약 5~10분정도)
예)

槐 瑰 魁 愧

회화나무 괴 구슬 괴 으뜸 괴 부끄러워 할 괴



북두칠성 괴 흙덩이 괴 크다 괴 창피할 괴

(한자로는 ‘화화나무 괴’이지만 다른 뜻으로 ‘느티나무 괴’자로도 쓰인다. 앞에 ‘나무 목’자를 빼면 ‘귀신 귀’ 자인데 그 ‘귀’ 자에다가 여러 가지 부수를 부치면 다음과 같은 ‘괴’ 자들이 나온다.

木(나무목) 王(임금 왕) 斗(말두) 土(흙 토) 人(사람 인) 女(계집 녀) 忄(마음 심)

이러한 한자의 뜻풀이를 재미있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탐방객에게 알기 쉽고 탐방로에 있는 느티나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동 식물이야기를 한다.)

(3) 물의 이야기

계곡은 숲이 간직한 아름다운 생명의 젖줄인 물의 발원지입니다.

우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사람이죠! 우리 사람 몸에는 약 70%가 물이니까요 그리고 동·식물들에게 식수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고마



운 물을 우리는 너무나 펑펑 쓰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날씨가 좋기도 하지만 비도 많이 오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오는 비가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요.
숲의 수자원 함양 기능은 숲이 빗물을 머금었다가 서서히 흘려보내는 인공 댐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여 녹색 댐이라고 불립니다. 녹색 댐 기능은 강우 시 홍수 유량을 경감시키는 흡수 조절 기능.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도 계곡의 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갈수 완화 기능,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 정화 기능 등을 말합니다. 산림은 지역 내에 떨어진 비를 토양으로 침투시키게 하여 저장케 하고 저장된 물을 적절히 반출하여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산림은 토양표면에 낙엽, 죽은 가지 나무뿌리, 초본류 등을 가지고 있어 물이 지표면으로 흘리지 않게 하고 토사의 유출도 방지 합니다. 건강한 산림은 민둥산에 비해 3.4배나 많은 물을 토양 내에 침투시키는 역할을 한고 봄이 되면 동·식물도 깨어나지만 그 전에 계곡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으면서 봄을 알리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람과 주변(숲이나 동·식물)에서 물에게 어떻게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사람이죠! 우리 사람 몸에는 약 70%가 물이니까요 그리고 동·식물들에게 식수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고마운 물을 우리는 너무나 펑펑 쓰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과 지금 현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얼마만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 하고 그에 대한 속담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물에 관한 속담-

수질 : 냇물에 오줌을 누면 고추 끝이 부어올라 감자고추가 된다, 사내가 해를 보고 오줌을 누거나 계집아이가 흐르는 물에 오줌 누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 도랑에 오줌을 싸면 지렁이가 고추를 문다. 먹는 물에 오줌을 싸면 벼락을 맞는다.

절약 : 입춘날 물을 헤프게 쓰면 水神(수신)의 노여움으로 흉년이 들거나 홍수 피해를 입는다. 밥을 비벼먹고 그릇에 물을 부어 놓으면 저승에 가서 부모를 만난다. 세숫물을 많이 쓰면 저승에 가서 다 마셔야 된다. 그릇에 물을 많이 떠서주면 정이 없어진다. 머리

감은 물로 발을 씻으면 저승 가서 죽은 어머니를 만난다. 물을 많이 쓰면 가난뱅이가 된다. 입출 전날에는 물을 남에게 주지도 얻지도 않는다. 보름날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수해를 당한다.

이러한 속담의 중요성을 아시겠지요. 옛 선조님들의 환경보호를 얼마나 생각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속담입니다.
그럼 이제 탐방객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물을 아껴 쓰시길 바랍니다.

(4) 계곡 주변의 나무(이야기)



계곡 건너편에 하얀 수피의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숲은 현사시나무 (은수원사시나무)랍니다.(은백양과 수원사시나무를 인공 배양하여 만든 나무입니다.) 수피가 하얗고 다이아몬드무늬를 갖고 있으며 자라는 속도가 빠릅니다.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는 보기 어렵지요. 사시나무 떤다는 말 들어 보셨나요? 잎 뒷면이 흰빛을 띠고, 잎자루가 워낙 길어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팔랑팔랑 움직이는 것이 나뭇잎에 부서지는 햇살과 함께 은가루를 뿌려 놓은 것처럼 반짝여서 멀리서 보아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얀 수피는 더운 열을 받지 않기 위한 전략이기도하고, 잎자루가 긴 것 또한 물을 빨리 빨아들이려는 노력과 함께 열을 발산하는 전략이랍니다. 봄에 꽃가루가 날려 눈병과 피부병을 일으켜 불편을 주기도 하고 빠른 성장으로 번식력 또한 왕성해 고민거리로 대두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네 소나무죠!!
저희 속리산 국립공원은 여러 종류의 나무도 많이 있지만 특히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속리산 법주사에 가면 정이품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산 법주사는 세조임금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속리산 법주사 가시면 자연환경안내원이 이야기를 해줄 것 입니다. 나무 문화는 그 지역에서 중요시 여기고, 또 자주 대할 수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자작나무 문화, 북유럽의 전나무 문화, 한국은 소나무 문화라고 할 수 있듯이 각 민족에게는 오랜 세월동안 역사와 운명을 함께한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소나무의 인연을 보면 한국인은 소나무로 지은 집에서 태어났고 푸른 생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치고 지상에서의 첫날을 맞고 태어나서 삼칠일 날에는 소나무로 삼신할미에게 산모의 건강과 새 생명의 장수를 빌고 그 아이가 자라면 솔방울을 장난감 삼아 놀고 솔씨와 껍질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먹고 솔 연기를 맡으며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 관에 육신이 담겨 솔숲에 묻히는 생을 살았습니다.

솔잎으로는 술과 차를 만들어 먹고 송화로는 다식을 만들어 먹었으며 송진은 송진 기름이 되 고 한약재가 되면 호박이라는 보석도 되었습니다.





(5) 달뿌리풀을 배경으로 찰칵!

갈대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고, 억새는 척박한 산에서 자랍니다. 갈대와 억새를 구분 할 때는 잎의 가운데가 흰 색이면 억새입니다. 이 두 식물은 잎의 끝이 예리한 톱 니로 되어 있어 살이 아주 잘 베어집니다. 살이 베이면 풀의 족이 들어가서 살이 짓무르게 됩니다.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아아 으악새 슬피 우는~ 에서 으악새는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억새가 마른 다음 바람에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입니다. 달뿌리풀은 잎이 한 방향으로만 나오는 설이 특징입니다. 계곡주변에서 잘 자라는 풀이지요. 뿌리가 땅위로 뻗어 자라므로 마디마디 수염뿌리는 자갈, 모래를 끌어안아 계곡의 산사태를 막아줍니다.
하천 주변에서는 사자머리 갈기 모양의 갈대를 볼 수 있는데, 달뿌리풀과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요. 갈대는 땅속으로 뿌리가 자라며 마디는 가는 대나무 닮았다 하여 가는대나무=갈대입니다. 다음부터는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대나무는 줄기 속이 비어있고 마디가 있고 줄기가 나무화된 풀이에요. 대나무와 비슷한 식물로는 벼, 보리, 옥수수 같은 것이 있다.

(6) 숲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숲에는 나무와 풀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볼까요?
(고라니, 노루, 다람쥐 , 장수풍뎅이, 하늘소등 많은 곤충), 생명들이 살고 있지요.
이들은 서로 도와가며 살고 있기 때문에 숲에서는 모두가 소중하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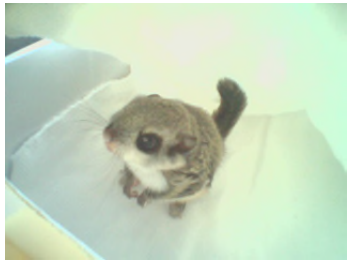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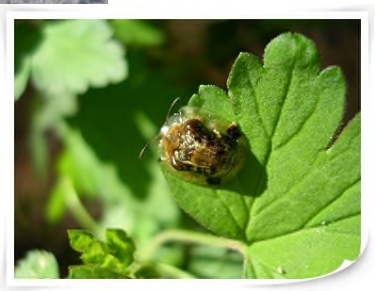


그림 8 ▲ 하늘 다람쥐

‘애벌레 좋아하나요?”
‘애벌레는 무엇을 먹을까요?”
나뭇잎을 갉아먹어 살아있는 나무를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요.
‘애벌레가 없으면 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숲에 새들이 없다면 어떨까요?”



▲ 왕바구미



▲ 큰남생이잎벌레

새 한 마리가 1년 동안 잡아먹는 벌레는 얼마나 될까요?
약 8만5천 마리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박새가 많은데 ,새끼를 키우는 몫까지 하면 일년에 약 8만5천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하네요.
만일 새가 없다면 많은 벌레들이 나뭇잎을 다 갉아먹어 나무가 죽게 되고 우리는 푸른 숲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의 질서는 나름대로 순리를 갖고 있지요. 징그러운 벌레도 먹이사슬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 풀, 곤충, 동물 등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가꾸어지고 있어 그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숲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얼까요?



▲ 푸른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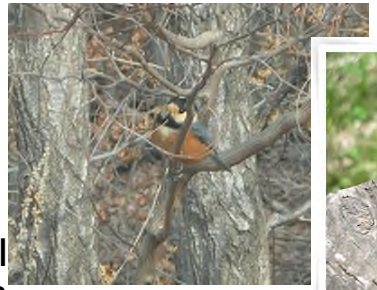
오늘 밥 먹었을 때 식탁의 반찬이 무엇 이었나요?

토끼는 무엇을 먹고 살지요? (사슴. 고라니, 초식동물들)

토끼는 풀을 먹고,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그리고 죽어서 나무나 풀의 영양분이 되고, 풀은 자라면 토끼의 먹이가 되고, 이것을 ‘먹이사슬 이라고 하지요.
숲에서는 이러한 순환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숲은 울창해지는 거랍니다.
숲은 사람이 없어도 살아가지만, 사람은 숲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림

나무한그루 풀 한포기 조약돌하나, 동. 식물 숲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떼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 곤줄박이


▲ 호박벌

숲의 가족을 이동시키는 것은 생태를 파괴하는 거지요.
숲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어요.
자연을 알게 되면 숲의 가족을 보게 되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끼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숲의 가족을 많 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숲이 건강해야 하고, 숲이 건강하려면 우리 모두 숲을 사랑해야겠죠!



특히 여름에 산에 오시면 솔솔 부는 바람에 얼굴을 맞고 가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숲의 나무에서 발산되는 피톤치드가 비록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가진 삼림욕의 실체라고 하지만 숲이 가진 다양한 쿨리저거 환경은 피톤치드 못지않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숲의 무형적인 혜택 이를테면 숲의 고요함, 자연적인 경관, 일상에서의 탈출감. 숲의 색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숲의 기상, 흐르는 물, 울퉁불퉁하고 가파른 길은 사람의 신체를 치료한다. 우선, 숲의 푸른색, 싱그러운 향기, 홀의 가목, 맑은 물소리와 새소리 , 이것은 사람의 감각 기관을 자극한다. 맑고 푸른색은 시각적으로 청량감을 주고, 크고 넓은 숲의 전경을 바라보면 눈의 피로가 풀리게 된다. 피톤치드의 역리 효과뿐만 아니라 운동량 증가에 대한 효과도 주목되고 있는데 삼나무, 소나무와 같은 침엽구에서 특히 많이 생성되는 알파피넨 이라는 테르펜계 물질은 대뇌피질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증가시키며 눈 동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숲에 오시면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우리 몸의 나쁜 병균을 소독해준답니다. 특히 아토피에 효과가 큰데 이것을 우리는 산속에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산림욕이라고 하지요.
또한 계곡의 풍부한 음이온이 포함된 신선한 공기는 탐방객의 가슴과 머리를 맑게 해줄 것입니다.

(7) 나이테 알아보기!



나이테는 나무를 잘랐을 때 나타나는 둥그런 모양의 띠를 말합니다.
나이테는 모든 나무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잘 생기지요.

우선 나무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풍부한 햇빛과 물입니다.
그래야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 낼 수 있지요.
나무가 생장(生長)한다는 것은 바로 햇빛과 물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만들어 자신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나무의 생장은 부피생장과 길이생장이 있습니다.
길이생장은 가지가 길게 자라는 것이고 부피생장은 나무의 몸통과 가지가 두꺼워 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키가 크는 것이 길이생장이고 뼈가 굵어지고 몸통이 굵어지는 것이 부피생장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 필요한 햇빛은 언제 강한가요?
예, 봄과 여름입니다.
이때는 비도 많이 오고 햇빛도 강하기 때문에 생장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생장이 왕성해지지요.
그에 반해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지요.
즉, 햇빛이 약해집니다.
비록 눈이 와서 수분이 많아지더라도 햇빛이 적어지기 때문에 생장하기에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생장속도가 늦어집니다.
덜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부피 생장으로 따지면 여름에는 1cm가 자랄 때 겨울에는 0.5mm만 자라게 됩니다.
이때 봄부터 여름에는 생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라는 부분의 색이 연해지고(이것을 춘재라고 합니다.)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생겨나는 부분(이것을 추재라고 합니다.)은 생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색이 진해집니다.
이 두개는 1년에 한 쌍씩 나타납니다.
즉, 연한 춘재와 짙은 춘재가 한 쌍이 되어야 1년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지요.
나이테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난 말입니다.
참고로 연륜(年輪)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나이를 뜻하는 말인데 "그 분은 역시 연륜이 있으셔서 그런 어려운 일도 현명하게 해결하시는군."이라고 할 때 씁니다.
연륜이란 곧, 나이 즉,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경험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이테는 계절변화가 뚜렷한 온대지방에서 잘 나타나고 생장속도가 거의 일정한 열대지방에서는 보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한다면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일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계곡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나라의 땅은 지금으로부터 30억 년 쯤 전에 생겨났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훨씬 오래된 곳이지요. 계곡은 우리나라의 산이 형성되면서 생긴 지형이지요. 좁은 땅에 산맥(대간과 정맥)이 많은 관계로 다른 나라사람들은 산이 많은 나라 랴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지요. 바다에 이르는 큰 강물도 실제로는 이미 땅 속에 스며들었던 비가 흙 속에서 깨끗하게 걸러진 뒤 다시 솟아오른 계곡의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 샘에서 나온 물들이 서로 만나 계곡을 이루고, 다시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 흐를 때 비로소 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강이 시작되는 근원지인 계곡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크기나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계곡은 산과 강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며, 내리는 비를 계곡으로부터 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게 하여 전체적인 물의 순환을 이끌어 내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모래 되는 과정의 노래 아시는지요? 함께 불러볼까요? 바윗돌 깨뜨려-돌덩이-깨뜨려-돌맹이-깨뜨려-자갈돌-깨뜨려-모래알 랄-랄랄랄라 랄랄라 ----
(짝짝짝 ---)
계곡은 정말 소중한 곳이지요.
우리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근원은 바로 계곡이지요. 죽어가는 물을 살리려면 먼저 물의 원천인 계곡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계곡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해야겠지요.

지금까지 자연 관찰 로를 돌아보았는데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없는 이야기 듣느라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힘을 모아 볼까요?
제가 '자연은 ! '하면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 '라고 외치면 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
모두 박수 짝짝짝

(9) 화양서원으로 출발!

화양동 계곡은 조선시대에 인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 중임을 역임한 우암 송시열이 자연을 사랑하여 은거하였던 곳이었으므로 계곡 주변으로 우암 송시열과 관련된 자취가 많습니다. 암서재. 만동묘, 화양서원, 석각이 산재해 있습니다.
화양구곡은 중국의 주자가 무이 산 계곡에 무이 정사를 짓고 그곳의 경치를 성리학을 공부하는 단계별 과정에 빗대어 노래했다는데요.



이곳의 경치가 무이구곡에 버금가므로 우암 송시열이 화양 구곡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의 뛰어난 경관 9구곡은 송시열의 수제자인 민지원의 글씨로 바위에 구곡의 이름을 새기면서 파천은 '화양구곡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대화하듯)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자연을 정서적인 의미에서 친근한 대상으로 생각하여, 건축물 하나를 세울 때도 주변의 자연 경관을 고려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이런 자연사랑의 정신은 오늘날 여러 문화 유적으로 자리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서정적인 공간으로 자리하였고 학문을 수양하는 장소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화양서원은 우암 송시열의 영정을 모시고 제향하는 곳으로, '전국의 사액서원 중에서도 가장 이름 있고 위세가 당당한 서원 이었는데요, 유생들의 기세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제수전의 봉납을 강요하고 화양 묵패의 폐단으로 철종9년(1858)에 폐쇄되었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말을 타고 만동묘를 지나다

가 하마비에 이르러 말에서 내리지 않자, 만동묘지기에게 발길로 걷어차이게 된 것이 서원 철폐령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만동묘! 중국의 황하가 백번 천 번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을 향하게 된다는 만절필동 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명나라황제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지요.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군대를 보냈던 황제이며, 의종은 청나라에 나라를 빼앗긴 명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가 풀려난 봉림대군이 조선의 열일곱 번째 왕인 효종으로 등극하여,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은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만동묘는 청나라 오랑캐를 무찌르는 상징적인 장소 로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만동묘를 들어가지전에 성공문이 있습니다. 성공문을 지나기 전 에 보면 계단이 다른 곳 보다 유난히 좁습니다. 만동묘! 명나라 신종황제와 마지막 황제 의 종의 위패를 모셔, 신성한 곳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예를 갖추어 들어가게 하려고 계단 의 폭이 짧고 높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올라서려면 위험하고 경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 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 발밑을 볼 수밖에 없지요. 지금 탐방객 뒤로 보이시는 곳이 화양 3곡인 읍궁암 입니다. 이곳의 희고 넓적한 바위인 제 3경 읍궁암은 송시열 선생께서 효종 임금의 승하 하심을 크게 슬퍼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이면 이곳에서 궁궐을 향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였 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여러 선비들의 뛰어난 선현을 받들어 모시면서 그 들의 큰 뜻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던 곳으로, 서원이 자리 잡은 곳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조용한 산기슭이나 계곡에 있는데, 이는 속세를 벗어나 학문에만 전념하라는 의도에서였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위에 ,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옆 정자가 있지요.



암서재입니다. (주체사상과 의리정신을 갖고 나라일 걱정과 후학들을 가르치며 주자학을 연구했던 송자의 서재.)
맑고 깨끗하여 거짓이 없는 자연을 닮으려는 심성! 옛사람들의 순수함이 느껴지나요? 계곡의 바위나 소나무와 어울려 자연스럽지요.
화양계곡에서 도명산을 오르는 길은 화양3교에서 오르는 길과 학소대앞 학소대교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며, 정상 못 미쳐 도명산 마애삼존불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화양동 계곡은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명산은 해발643m로 높지 않아 산행하는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지요. 도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문장대. 청화산, 조항산, 대야산, 장성봉, 희양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요. 이곳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해주세요.
자연은! 우리의 미래!